

# 치매, 불치병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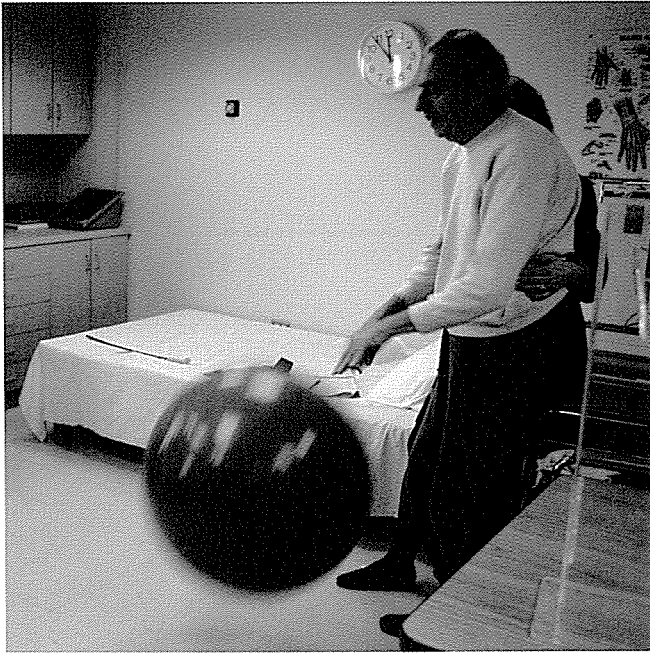
**이찬휘**  
SBS 과학정보부장



의료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고귀한 생명과 관계된 취재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고 계신 말기 암 환자, 갑자기 찾아 든 병마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루 아침에 쓰러져 의식까지 잃어버린 뇌졸중 환자, 학수고대 하던 이들을 결혼한 지 무려 13년 만에 갖게 된 산모 등 환자들과의 인터뷰는 매일 매일 희로애락으로 파노라마처럼 쌓여 간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를 만났다. 70대 후반인 부부였다. 3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두 분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3년 전 이 가정에 액운이 닥치게 되었다. 부인께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응급실로 긴급히 후송 돼 치료를 받았지만 반신이 마비됐고 말도 어눌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뇌졸중 환자가 되고 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아내는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짜증을 냈고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갔다. 예전에 잘 다니던 길도 다 잊어버리고,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밖으로 산책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뇌출혈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 온 아내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결심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집안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동안 남편 아내에게 잘 해 주지 못한 것을 모두 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했다. 특히, 밖으로 산책조차 나가기 싫어하는 아내 손을 잡고 틈만 나면 나가 운동을 같이 하고, 집 옆에 있는 공원에 나가 처음에는 체조를 같이 하며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 아내의 상태를 의사와 상의했다. 또한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 신문이나 책을 수시로 읽어 줬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짜증을 냈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뇌리를 스쳤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이겨냈다. 이런 남편의 사랑 덕분에 아내는 3년 만에 거의 정상인처럼 건강해졌다. 남의 도움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게 됐고 어눌하던 말도 예전과 같진 않지만 알아 듣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남편은 지난 3년 동안 아내와 같이 했던 사랑과 인내의 세월을 담담히 저에게 말씀해 주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의 눈에는 남편 사랑에 대한 고마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뇌세포가 죽어가는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다. 그런데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 것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쳐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치매는 불치병' 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치매도 일찍 발견해 치료를 받고 가족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인내로 끌어준다면 앞에 소개한 아름다운 부부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또 한 번 치매에 걸리면 뇌세포는 시간과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되므로 현재의 치료 방법은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더디게 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을 되살리고 뇌세포를 재생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치매 치료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집에 노인이 계신 경우 치매의 증상을 잘 알아두었다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다. 일찍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10명 중 1~2명의 경우는 완치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도 개발이 되었다. ☺

## ● 치매의 대표적 증상

### -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

- 기억력 저하
- 언어 기능 저하
- 지남력 저하: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
- 시·공간 능력 저하
- 수행 능력 저하

### -정신 및 행동 증상

- 성격 변화
- 우울
- 초조
- 환각
- 망상

## ● 치매의 단계적 증상

### -경도: 잦은 기억 상실

-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다.
- 익숙한 환경에서 혼돈을 일으키거나 지남력 상실

### -중증도:언어 장애

- 목욕/몸단장/개인위생 장애
- 피탄 행동

### -고도:느리거나 알 수 없는 말

- 대소변 가리기 상실
- 타인의 간병이 없이는 생활 못함